

# 익산시, 인구유출 방지 정책 추진

### 인구 30만명 붕괴...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출산장려정책 강화 초점

인구 30만명이 붕괴된 전북 익산시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 추진한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30만명 인구를 유지하던 익산지역이 20~30대 청년층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11월 현재 인구는 29만9948명으로 집계됐다.

익산시는 인구 30만명 붕괴를 타개하기 위해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국비를 확보하고 시민대상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 시 정책에 반영할 방침

이다.

여기에 출산·보건·귀농귀촌·주거·교육 등 주요부서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인구정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익산사랑카드에 대한 혜택을 보강하고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할인혜택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출산장려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춘 행정 정책을 입안해 추진하게 된다.

우선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위

해 예술의전당,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센터, 보건소 등에 대한 할인율과 무료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출산장려금, 육아·보육정보 등의 혜택 강화를 위한 출산·육아 정책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심분 활용하기 위해 귀농귀촌 정책도 강화한다. 영농기술과 이주비 등을 지원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일조하게 된다.

청년층 유출 방지를 위해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을 확대운영해 민간취업과의 연계에 나서는 것은 물론 청년 창업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교육·컨설팅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구상이다.

또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호남 3대 도시로서 익산의 자존심인 30만명 인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시, 공공-항만해운물류정책 대상

### '한국 중소 중견기업 대상' 서... 항만인프라 개선 등 공로

군산시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중앙일보가 공동 후원한 '2017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대상'에서 공공-항만해운물류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7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대상'은 우수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기업(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 중견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치하하고자 제정됐다.

군산시는 2008년 '항만물류과'를 신설하여 신항만 산업육성과 항만인프라 구축 등 물동량 확대를 위

한 다양한 항만해운물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군산항만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굳건히 하면서 ▲군산항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항로다변화를 통한 도내 기업체 물류비 절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국내외 포트세일 추진 ▲군산항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군산항의 경쟁력 향상과 물동량 창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은 이번 대상 수상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관근 기자

## 익산 의경어머니회 나눔 봉사

익산경찰서는 13일 타격대원과 의경어머니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 익산시 신원동에 위치한 원광효도마을 방문 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은 동 시설에 계신 노인들의 치매예방과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보조하고 말벗되어주기, 시설 내부 청소와 정리정돈 등 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의경어머니회는 봉사활동에 앞서 대원들의 연할 사기진작을 위해 점심식사와 단체 활동복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시간여행축제, 관광객 축제 만족도 상승

### 평가보고회 개최... 행사공간 확대 통한 거리형 축제 제시 등 다양한 논의 이어져

군산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5회 시간여행축제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문동신 시장의 주재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는 간부공무원들과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시의회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보고회에 앞서 이번 시간여행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한 민간공공자 4명(▲최영기, 시간여행축제위원회 위원장 ▲유승민, 한국커피문화연구원 대표 ▲김종성, 군장대교수 ▲유은심, 희망나눔연구소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시간여행축제가 많은 관광객들로 성황을 이루고, 방문객들로부터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큰 성공을 거둔 데에는 올해 새롭게 출범한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영기)의 주도적인 역할과 민간에서의 다양한 콘텐츠 참여가 가능했던 기반이 마련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진행된 성과보고에서는 이번 시간여행축제의 가장 큰 성과로 ▲축제의 정체성과 차별성 확립 ▲관광객의 축제 만족도 상승 ▲축제 체류시간의 의미 있는 변화 ▲거리형 축제로의 새로운 시도 등을 꼽았다.

실제로 축제를 다녀간 관광객의 반응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폭발적인 반응과,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용역평가에서 조사된 10개 항목의 만족도 항목 전체에서 전년대



군산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5회 시간여행축제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문동신 시장의 주재로 진행했다.

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수치상으로도 입증되었다.

올해 시간여행축제는 페어리드 참여확대, 비가림 시설 및 휴게공간의 확충, 축제콘텐츠 강화 등의 개선사항과 축제시간 연장, 축제공간의 확대, 캐릭터 개발 및 유료 콘텐츠 운영 등의 새로운 시도가 맞물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평가다.

또한 타 축제와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완성도를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이어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도 도출되었다.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추가 예산 확보 ▲시민주도로 진행되는 콘텐츠 개발 ▲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외국인 홈페이지 개선 ▲각종 편의시설 확충 ▲교통, 주차안내 등이 제시되었다.

내년도 발전방안으로 축제 행사공간을 내항사거리에서 명산사거리에 이르는 4차선 도로를 포함하여 구)경찰서까지 확대하는 '거리형 축제' 형식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밖에도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축제 프로그램의 심층발전 및 홍보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방안들이 평가회를 통해 제시되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콘텐츠가 확실한 시간여행축제를 통해 군산의 관광 트렌드를 확실히 부각시키고 있다"며 "올해의 성공이 밑거름이 되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 원광대, 취업지원 우수대학 선정

### '청년드림 Best Practice' 서... 한국고용정보원장상 수상

원광대학교가 대학생 취업지원과 인재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 청년드림 Best Practice' 취업지원 영역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한국고용정보원장상을 받았다.

청년드림 Best Practice는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동아일보가 공동 주관했으며, 14일 서울 세라톤 디큐브시티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취업지원 역량을 인정받은 원

광대는 도내 취·창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학년부터 체계적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과 연계하는 지원 사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인력개발처에서 운영하는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사업과 진로·취업 교과목, 해외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직무역량캠프, 취업선배 멘토클럽, 직무역량보급, UCC캠프, 취업 및 창업특강, 직무적성검사,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사업 등을 통한 유기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됐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국가식품클러스터, 3개업체 계약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체결이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는 12월 13일 (주)가이에프앤디 및 온고을한과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2월 14일에는 농업회사법인 청정농장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48개사(39만8,796㎡)가 입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스류와 음료를 주생산품으로 하는 (주)가이에프앤디는 2,945㎡(892평)를 분양받아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및 다양화를 계획하고 있다. 1,689㎡(512평)를 분양받은 온고을한과는 가형형태로 한과를 제조해 왔으며, 온라인 판매 등 사업확장을 위해 생산공장을 내년 4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농업회사법인 청정농장은 학교, 식당, 마트 등에 계란을 납품하는 유통업체로 분양규모는 4,518㎡(1,367평)이며, 내년 2월에 착공하여 구운 계란을 직접 생산하여 유통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 하운도, IBC 'Top 100 엔지니어' 등재

### 'Great Men and Women of Science' 에도

군산대학교 조선헌양공학과 하운도 교수(38·사진)가 그간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 3대 명사전 발행기관 중 하나인 '국제인명센터(IBC)' 선정 'Top 100 Engineers 2017' 및 'Great Men and Women of Science' 에 등재된다.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인명센터(IBC)'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위치하는 유럽의 대표적 인명기관으로 주로



개인적, 학술적 연구에서 중요한 업적을 달성한 전 세계의 학자 및 연구자를 등재하고 있다.

하 교수는 2016년에도 IBC의 '21세기'의 우수한 지식인 2000명 및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바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에 등재된 바 있다.

하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전산역학 및 최적설계를 전공하고 전산역학을 통해 구조 최적설계 및 동적과 괴역학 매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해 왔고, 한국 전산구조공학회 논문상 수상(2015) 및 한국 전산구조공학회 우수논문발표상(2012)을 수상하였다. /군산=김관근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